

# Gary Yates 박사, Jeremiah, 강의 5, Jeremiah의 구성

© 2024 Gary Yate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의 구성에 관한 세션 5입니다.

나는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이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구약성서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처음에 책에 접근할 때, 이 길고 혼란스러운 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두 세션에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책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세션에서는 예레미야서의 구성과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비록 예레미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시 믿는다 할지라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되어 바람에 흔들리는 돛과 같이 말하느니라.

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책은 아닙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설교할 때마다 누군가가 가서 그가 말한 내용을 옮겨 적고 그 내용이 즉시 책에 추가되는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예레미야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가 기록할 내용을 계시해 주신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긴 책을 한 권으로 묶는 데는 오랜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요시야 13년(BC 626년)에 부르심을 받은 때부터 BC 580년경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대략 50년 동안 지속된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묘사하는 책을 모아서 대표하는 데에는 분명히 길고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예레미야서에 접근하면서 몇 가지 인용문이 있습니다. 우선 앤드류 쉬드(Andrew Sheed)가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예레미야서를 읽고 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길고, 반복으로 가득 차 있으며, 연대기가 비선형적이며, 한 장르에서 다른 장르로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RP 캐롤은 예레미야서 주석에서 이 책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지나치게 회의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현대 독자들에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는 사실상 책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혼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때때로 예레미야서를 주제로 논문을 쓰면서 그것이 정확히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지나치게 회의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책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이미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Dr. Billy Graham과 같은 사람의 사역을 한 권의 책으로 표현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긴 사역, 그의 설교의 일부, 종종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연대기나 시간, 사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Dr. Graham의 사역에 대한 그림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이미지는 예레미야서를 마치 오래된 농가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보면 그곳에 초기의 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마도 집의 소유권이 바뀌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이 들어오면서 몇 가지 추가, 날개 및 확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집이 왜, 어떻게 조립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 집의 평면도를 보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션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서의 구성과 구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예레미야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순서와 연대기와 흐름이 있음을 이해하고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를 이해합니다.

예레미야서의 구성을 살펴보면서 떠오르는 문제 중 하나는 예레미야서가 다양한 장르와 자료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에 대한 초기 비평 연구 중 하나에서 Bernard Duhem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시와 예레미야서에 있는 산문을 구별했습니다. 지그문트 모윈켈(Sigmund Mowinckel)이 와서 그 연구에 덧붙여 예레미야서에는 세 가지 다른 특정 장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A, B, C 자료라고 불렀습니다. Mowinckel이 확인한 자료는 예레미야서의 시적 신탁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적 형태의 간략한 신탁이다.

특히 1장부터 25장까지에서 이러한 내용은 매우 흔합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은 이것을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달한 주요 방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서를 살펴보면, 생생한 이미지, 평행법, 강력하고 빠른 이미지로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달한 시적 신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Mowinckel이 확인한 두 번째 유형의 자료는 B 자료, 즉 내러티브 설명 또는 선지자의 삶과 사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예레미야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점에 있어서 예레미야와 같은 유일한 예언서는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매우 짧은 책이다. 이사야서와 비교하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사야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은 6~8장, 37~39장 두 부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 점에 있어서 독특합니다.

내러티브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 자료는 Mowinckel이 산문 설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신탁의 형태라기보다는 설교이다. 이것은 좀 더 긴 산문 이야기인 설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녹음해 놓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설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설교의 필사본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는 예레미야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서 몇 구절만 읽고 싶었는데, 11장에 나오는 산문 설교입니다.

11장의 산문 설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반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처벌하신다는 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레미야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시작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하라 하였느니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에게 명령한 이 언약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라 쇠 풀무에서 이르기를 너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맹세를 오늘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자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구절은 더욱 계속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와 설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단순히 간단한 시적 신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장된 설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평 학자들이 이 세 가지 다른 유형의 자료를 가지고 한 일은 그들이 이 책의 시를 가장 초기의 부분이자 더 실제적이고 확실한 예레미야서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러티브와 산문 설교를 취하여 선지자의 후기 재해석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책들이 신명기학 편집자들에 의해 편집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의 메시지를 재해석한 후기 자료와 후기 자료를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판적 학문에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역사적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이 책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초상화는 현실적이고 정직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후의 자료에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과 기본적으로 다른 인물을 제시한 것입니까? 나는 이것에 관해 몇 가지 아이디어와 몇 가지 응답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러한 다양한 출처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예레미야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방식이 다양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거리 설교자로서 강력하고 간단한 이미지와 신탁으로 전달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성전 설교를 할 때도 있었고, 더 확장된 설교가 있었고, 우리가 일요일 아침에 목사님에게서 듣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서의 설교와 이야기에 나오는 많은 단어와 문구가 신명기와 신명기의 역사와 유사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일부인 열왕기는 기원전 55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580년경에 그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역사서의 구성과 기원전 550년과 유배 당시 6세기에 최종 편집에 참여한 사람들, 즉 편집자들이 다음 작업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최종 구성과 편집. 이 책들은 서로 교차 수분되었으며, 종종 영향의 방향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분류된 신명기의 역사책과 예레미야서를 비교할 때 예레미야서에는 그 메시지를 독특하게 만드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나 열왕기에 나오는 신명기의 역사는 므낫세의 사악함과 그의 55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루살렘을 접시처럼 닦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살펴본 다윗왕조 후반기와 요시야 이후의 왕들의 실패에 더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열왕기와 달리 예레미야서는 회복의 개념을 훨씬 더 강하게 강조할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나타난 회복의 메시지는 매우 미미합니다. 책 끝부분에는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회복을 위해 행하실 일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나 목적은 거기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는 신명기의 역사보다는 그 점에서 신명기와 더 유사해 보입니다.

여러 면에서 예레미야서에 대한 성찰적 재구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이 예레미야와 바룩 자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NICOT 주석의 존 톰슨(John Thompson)과 같은 보수적인 평론가들은 예레미야와 바룩 자신이 오랜 세월을 걸쳐 예레미야의 사역을 성찰하면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 시작 부분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전파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 과정에서 심판을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의 생애 말년에 그 메시지를 재구성하면서 그것은 포로들을 위한 메시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성찰이 그의 메시지를 수정하고 변경한 신명기학 편집자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예레미야와 바룩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양한 자료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시적 신탁을 읽든, 산문 이야기를 읽든, 산문 설교를 읽든, 이러한 다양한 자료에서 드러나는 예레미야의 관점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기본적인 신학적 통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의 어느 부분을 보든, 어떤 종류의 자료를 보든 상관없이 만나게 될 특정 핵심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강조점은 유다가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명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 사상은 주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벨론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단지 산문이나 시가 아닙니다.

그것이 책 전체의 메시지이다. 그리고 우리가 책 전체를 볼 때, 시와 산문 부분 모두 심판이 있는 후에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출처별로 나누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신학적인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자료에서 나오는 예레미야에 대한 통일된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문과 시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이렇게 다양한 장르, 다양한 형태로 전달되는 데에는 문학적인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Lewis Stuhlman이 제안한 것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사역을 통해 우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산문 설교가 실제로 책에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어나는 일은 예레미야서의 시적 신탁을 통해 이 모든 다양한 이미지가 우리를 덮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불성실한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는 사자를 유다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유다는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불충실했습니다. 산문 설교가 하는 일은 그 모든 시적 이미지를 취해서 요약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Stuhlman이 제안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1장부터 25장까지 다섯 가지 구체적인 산문 설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실제로 여러 면에서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특히 현대 독자로서 이 모든 시적 이미지를 한데 모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산문 설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산문 설교는 언약에 대한 다른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 요약 구절 중 하나인 예레미야 7장은 성전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0장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언약을 어겼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산문 설교입니다.

예레미야 11장,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산문 설교입니다. 언약은 단지 그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8장과 19장,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산문 설교.

그들은 그 기회를 상실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문학 장르에서 나타나는 통일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산문과 시, 이야기, 설화와 설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예레미야서의 구성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는 실제로 이에 대한 일종의 전조가 되는 몇 가지 비판적 이론과 것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아마도 다른 어떤 주요 선지자보다도 예레미야서를 책으로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책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실제로 이 책의 일부를 구성했거나 바룩이 이 책의 일부를 구성한 5~6개의 다른 출처와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두루마리와 소스가 합쳐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 구절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 특별한 구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그 메시지를 바룩에게 받아쓰게 한 다음 바룩이 성전에서 그 메시지를 읽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해는 여호야김 4년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레미야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기록하라는 구체적 명령을 받기 전까지 20년 넘게 설교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것이 예레미야가 이것을 결코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책으로 구성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에 우리가 처음으로 보는 일입니다.

그 장을 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또 다른 두루마리를 쓰라고 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다시 썼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에 담긴 메시지의 기본 핵심이 예레미야서 1장부터 25장에 나오는 심판의 말씀과 예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째 두루마리를 기록할 때도 거기에 비슷한 말을 많이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레미야서의 첫 번째 실질적인 구성이 그의 사역 20년차에 일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레미야의 사역 20~30년 동안 원래의 단어에 유사한 단어가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와 새로운 설교를 추가하는 끊임없는 과정이 있었고, 어쩌면 포로 생활과 예레미야의 사역 말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려하여 예전 설교를 캐스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주목하고 싶었던 두 번째 출처는 예레미야 29장 1절에 예레미야가 597년 이후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알려 준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는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한 것 같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 땅에 정착하여 거기에 집을 짓고 가족과 함께 소일을 하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로 생활에서 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에 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 희망의 말씀 중 일부가 그 편지를 통해 전해졌을 수도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예레미야 29장에서 말하는 내용의 배경입니다. 예레미야 30장에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서의 중심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많은 심판의 말씀을 주라는 명령을 받은 이 선지자에게 소망의 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책이나 두루마리에 기록했음을 알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스러운 상상력을 조금 사용해야 하는데, 시인 30장과 31장, 산문인 32장과 33장에 나오는 장은 원래는 독립된 단위로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의 희망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두루마리 또는 네 번째 출처는 예레미야 51장 59절부터 6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50장과 51장의 마지막 두 주요 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벨론 백성과 바벨론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 사용하신 왕에 대한 길고 정교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신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룩의 형제이자 예레미야를 도운 또 다른 서기관으로 보이는 새라이아가 실제로 시드기야와 함께 이 두루마리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고 알려줍니다. 포로 생활이 있기 얼마 전 시드기야가 그곳에서 바벨론 왕을 만났을 때 새라이아가 바벨론에서 두루마리를 읽은 후 상징적인 행위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 주위에 돌을 묶은 다음 그 두루마리를 유프라테스 강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멸망, 곧 바벨론 국가의 최종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출처, 또 다른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편집자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후대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 자신이 쓴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서의 전기적 서술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 45장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자서전으로 썼다기보다는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를 쓴 사람이 바룩이었을 가능성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45장에서 바룩에게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약속은 저자 또는 이 부분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식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권서의 역할을 합니다. 포스트스크립트 같은 거죠. 시편에는 제목을 부여하는 머리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에서 바룩과 함께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의 구성에 관해 흥미로운 또 다른 것 중 하나는 책입니다. 우리는 종종 책의 한 부분에서 특정 구절이 중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다른 부분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책. 예를 들어, 예레미야 23장 20절은 여호와와 그의 진노가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위로서 30장 24절에도 나옵니다.

23장은 주님께서 다윗의 집에서 나올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은 예레미야 33장, 15장, 16장에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과정에서 예레미야와 바룩이 재해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사역을 더 깊은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거나 예레미야가 다른 맥락, 다른 상황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다양한 부분에서 나온 메시지는 재사용되어 다양한 상황과 상황에 다시 적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신탁 중 일부는 책의 뒷부분에 다시 적용되어 바벨론에 대해 언급됩니다. 예레미야서 초반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를 공격할 북방의 적의 형태로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는 바벨론을 공격할 북쪽의 적군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는 다른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예레미야 메시지의 다양한 부분이 다양한 두루마리, 다양한 출처에서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삶의 긴 과정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죽은 후에도 바룩이 이 과정을 마쳤을 가능성이 있고, 히브리어 정경 전체를 하나로 모아 순서와 디자인을 정하는 책임을 맡은 편집자들도 이 과정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파할 때 예레미야에게 영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바룩, 그리고 그와 같은 영감을 받은 편집자들에게도 영감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어렵고 복잡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손을 뺐으셨고,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를 위해 원하고 계획한 형태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지속적인 메시지.

이제 예레미야서와 관련된 마지막 이슈가 있는데, 이는 다시 이 책의 발전과 형성, 그리고 구성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서의 고대 사본과 사본이 예레미야서의 매우 다른 두 가지 버전을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한 버전은 칠십인역이라고 불리는 구약의 그리스어 번역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버전은 히브리어 본문이나 마소라 본문에 반영됩니다. 마소라 본문은 예레미야서이자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서의 형태입니다. 마소라 본문은 영어 성경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킹 제임스 버전, ESV, NIV, NASB 등 모든 영어 성경은 모두 히브리어 마소라 버전의 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의 두 가지 다른 형태, 즉 칠십인역과 마소라 본문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버전의 책 사이에는 매우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칠십인역의 그리스어 본문은 마소라 본문에 있는 번역본보다 14% 더

짧습니다. 즉, 마소라 본문에는 그리스어 본문에는 없는 단어가 적어도, 대략 2,700개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말은 예레미야 사역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바꾸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다양한 구절에 대한 다른 통찰력과 다른 해석을 제공합니다. 두 본문의 두 번째 차이점은 그리스어 본문의 순서와 배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소라 본문을 반영한 영어 성경에서는 예레미야가 나라들을 대적하여 전파한 신탁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46장부터 51장에 나옵니다.

그리스어 버전에서는 그 신탁이 25장 13절 뒤에 나옵니다. 따라서 신탁은 책 중간에 나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그리스어 번역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신탁의 순서가 히브리어 번역본과 영어 성경에 있는 신탁의 순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26절과 같이 가장 유명하거나 가장 중요한 예에 중요한 구절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이지만 70인역 버전의 책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차이점은 마소라 본문에 2장, 7장, 16장, 27장의 설교 제목과 같이 소개 제목이 있는 추가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표현이 마소라 본문에는 70인역보다 65배나 더 많이 나옵니다. 이는 LXX가 마소라 역본에 의해 추가된 내용과 함께 이 책의 초기 역본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버전이 먼저 나오나요? 이 중 어느 것이 더 독창적입니까? 그렇다면 가장 큰 질문은 이 중 어느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히브리어로 말했기 때문에 히브리어 버전이 원본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어는 번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발견되는 예레미야서의 추가된 내용은 삭제되거나 제거된 것보다 이전 버전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또한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을 통해

예레미야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는 우리가 거의 천년 전에 가지고 있던 구약의 초기 버전을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해 두루마리를 통해 이해하게 된 것은 초기에 70인역과 마소라 본문 모두에서 발견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예레미야서의 히브리어 번역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쿰란의 네 번째 동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조각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그곳에서 발견된 예레미야서의 아주 작고 작은 조각들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 단편들 중 두 개, 즉 4q 예레미야 A와 4q 예레미야 C가 거기에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그리고 다시 작은 단편들이 마소라 본문에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동굴에서 발견된 책의 또 다른 단편인 4q 예레미야 B는 우리가 LXX에서 읽은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그리스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아니지만 원래 칠십인역의 히브리어 원형과 마소라 본문에도 반영된 이 책의 히브리어 버전이 있었음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나는 이 두 버전이 두 가지 특정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50년에 걸쳐 수행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예레미야와 바룩이 이 두 버전의 책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LXX는 아마도 예레미야서의 초기 버전을 반영하고 MT는 예레미야서의 최종 형태를 반영합니다. 바룩, 예레미야 또는 이에 관련된 다른 영감받은 편집자들은 예레미야 사역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 다른 버전을 낳는 또 다른 현실은 예레미야의 사역이 넓은 지리적 영역에 걸쳐 일어난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이후 바빌론에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레미야, 바룩, 그리고 다른 난민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습니다. 팩스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쇄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FedEx Express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레미야서의 이 두 가지 다른 버전이 아마도 이 책이 읽히고 제작되는 지리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LXX 역본은 이집트에서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예레미야서의 초기 형태였습니다.

후기의 완전한 예레미야서, 포로들과 바벨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 더 광범위하게 초점을 맞춘 책은 바빌론에서 유포되었으며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가져와서 주요한 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버전. 이에 대한 나의 이해는 우리가 이들 중 하나가 영감을 받은 전체 문제에 대해 정말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문제는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칠십인역이 초대교회의 구약성서였다는 점이다. 마소라 본문은 유대인과 랍비들을 위한 히브리어 정경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LXX를 예레미야서의 기독교 번역본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 때문에 칠십인역을 사용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MT보다 LXX 역의 예레미야서가 우월하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속한 문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된 버전일 뿐입니다.

나는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학자들이 예레미야서를 조사하고 연구할 때 두 가지 다른 번역본을 비교하는 것이 종종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이 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해하거나 특정 본문이나 구절에서 더 나은 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사역 중 어느 시점에 작성된 예레미야의 초기

버전부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미래와 하나님의 회복에 관해 말해야 했던 것에 대한 예레미야와 바룩의 최종 묵상까지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칠십인역에 나오지 않는 구절 중 하나가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26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 그 구절이 다윗 가문의 미래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23장에 나오는 구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왕좌에 앉을 사람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벨론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의 맥락에서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기초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구절은 또한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사람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그 땅으로 돌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행했던 예배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될 때 레위인과 제사장직,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중요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의 이 두 버전은 모두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예레미야의 사역의 다양한 시점과 관점에서 그의 메시지를 반영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는 이 메시지나 책의 구성을 다루는 이 특정 세션에서 많은 것을 다루었습니다.

앤드루 쉬드(Andrew Sheed)는 마소라 본문과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가 성경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지시하셨는지에 따라 이것이 히브리어 정경의 예레미야서 정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쉬드는 마소라 본문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한 말처럼 우리에게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이자 마지막 버전일 뿐만 아니라 대상 청중인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가 예레미야의 눈에는 신성한 구원 계획에서 미래를 가진 유일한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씨앗은 바벨론 땅에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포로 생활과 구원 역사에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희망을 살펴보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교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서 궁극적인 회복을 가져오기 위해 예수님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의 최종 형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회복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4장에 보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망, 즉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소망을 인하여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땅으로 돌려 보내십시오.

나쁜 무화과는 그 땅에 남아 있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형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 포로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포로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심판과 함께 그 책의 최종 형태는 미래에 일어날 희망과 위로와 회복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서의 구성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세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자료와 예레미야서가 산문과 시로 구성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가 서로 다른 출처, 서로 다른 두루마리를 모아서 구성했다는 증거에 대해 책 자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역시 예레미야와 바룩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대 사본에 반영된 예레미야서의 다양한 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70인역과 MT는 이것이 예레미야서에 성장과 발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책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영하는 통일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소망이니라.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의 구성에 관한 세션 5입니다.